

2010년 경제전망과 주류산업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최근까지는 V자형 회복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직후인 동년 4분기에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산업생산지수나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들이 무서울 정도의 추락을 했다. 그야말로 자연낙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하락이었다. 앨런 그린스판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의회증언에서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경제위기"라고 한 표현이 충분히 공감할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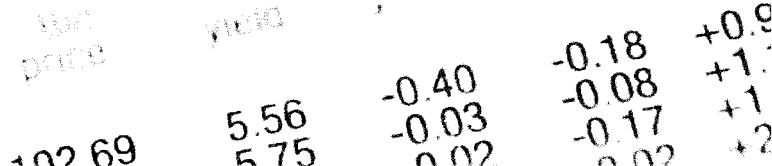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대부분 국가의 경제상황이 일변했다. 2009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경제가 공포스러운 하락세를 멈추고 서서히 회복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당초의 예상을 벗어난 빠른 회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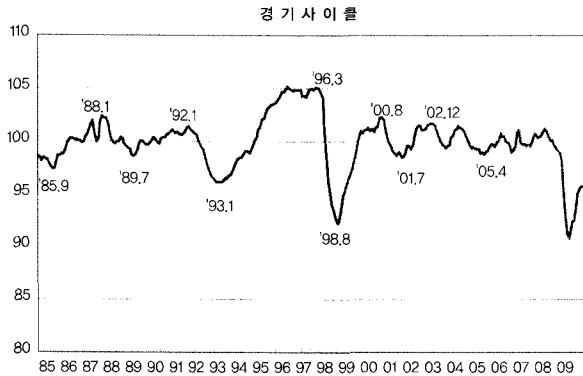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월을 바닥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동년 1월쯤, 일본도 동년 3월쯤 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다소 늦게 동년 6월쯤 경기가 바닥을

쳤다 분석이 많다. 미국경제가 2007년 12월 경기정점을 기록하고 1년 반 정도만에 경기가 회복된 것은 과거 1929년 대공황때 43개월간 경기후퇴가 지속됐던 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일본경제도 과거 평균 경기하강 기간인 16개월보다도 짧은 13개월의 경기하강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이 경기정점이었던 만큼 지난해 2월 바닥을 쳤다면 1년 남짓 정도의 하강에 그친 셈이다. 대부분 국가의 경기하강 골은 깊었지만 그 대신 기간은 의외로 짧게 나타난 것이다.

세계경제는 올해도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1.1%를 기록했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회복세를 지속해 올해는 3.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 4.5%, 미국 1.5%, 유로 0.3%, 일본 1.7%, 중국 9.0% 등이다.

세계경제가 일제히 조기회복 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각국의 강력한 정책공조 때문이다. 대다수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쓴 것이 효





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규모를 보면 미국이 7872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6%, 일본이 27조 4000억엔으로 GDP대비 4.7%였다. 중국은 4조 위안을 지난해 10월 다른 나라에 앞서 가장 일찍 투입했으며 그 규모는 GDP의 16%로 가장 크다. 우리나라도 50조원의 녹색 뉴딜정책과 28조 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상고하자 경기 전망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그 모습은 L자형 혹은 나이키형, 바나나형 등 완만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까지 경기사이클은 V자형을 그렸다. 의외로 빠른 경기회복세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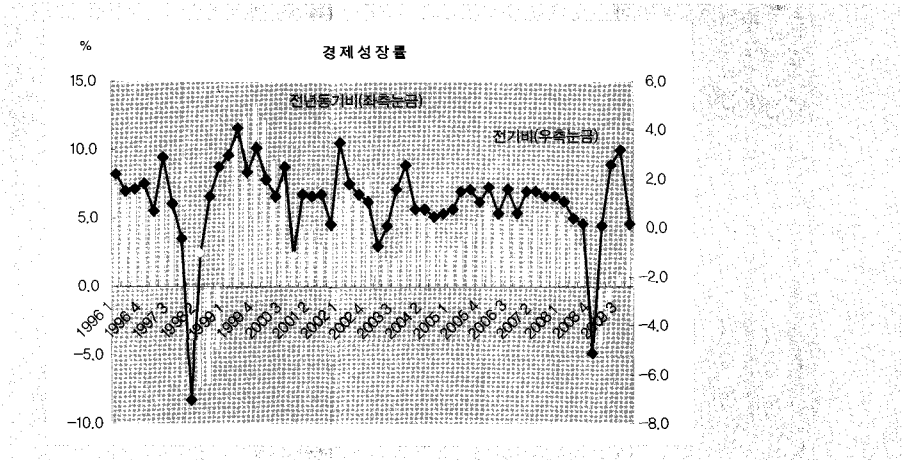
경기사이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7년말 터진 외환위기 때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다가 1998년 8월 바닥을 치고 깨끗한 V자형 회복세를 보였던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두 가지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연속 회복하더니 올 1월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향후 6~7개월 후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수(전년동월비)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 경기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총체적인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을 보아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8년 4분기에 -5.1%로 세계 주요국중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에는 0.1%, 2분기에는 2.6%, 3분기에는 3.2%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성장률도 분기가 지나면서 더욱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성장률이 또 다시 0.2%로 푹 떨어졌다.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4.3%에서 동년 4분기에 6.3%로 크게 높아졌지만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하강이 극심했던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실제 경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일종의 수치상 착시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기회복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민간부문의 자율적 회복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 정부가 유동성 흡수와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 본격 나설 경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경기사이클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경기가 둔화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 여건도 불안요인 존재

세계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불안요인도 경기하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더블딥(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에 빠지는 현상) 가능성이다. 세계경제 불안요인으로 크게 미국의 금융개혁과 중국의 긴축정책,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개혁

미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1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막고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개혁안(일명 '볼커 룰')을 발표했다. 볼커 룰은 금융규제 강화 방안으로, 간간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한 폴 볼커 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룰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업무 범위 측면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보유하거나 그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자기계정 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있다. 자기계정 거래란 투자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식, 채권, 옵션, 원자재,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된 원인 중 하나로 은행권의 업무 범위에 거의 제약이 없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개혁안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규모의 시장점유율 상한선(현행 10%)을 하향조정하고 예금 이외의 자금조달(채권발행, 자본금 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금융 규제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 발생 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가 강화되었다가 다시

완화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1929년 대공황때 전체 은행의 20%가 파산하자 은행권의 투기적 거래 행태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었고 미국 정부는 연방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CB 업무와 IB 업무를 분리했다. 1932년 단일 법인이 대출과 증권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크게 떨어지고 일본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부상하자 미국은 반대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게 됐다. 1986년 CB가 대출의 5% 범위 내에서 IB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처음 완화한 후 1989년 10%, 1996년에는 25%가 추가 완화되며 법안은 유명무실화되었다. 1999년엔 트래블러스 보험그룹과 씨티은행의 합병을 계기로 보험업 겸영 제한마저 철폐되며 글라스-스티걸법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CB와 IB 업무의 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규제법안이 원안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IB 업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비교우위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안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무튼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물론 세계경제 회복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IB들의 투자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위축될수 밖에 없어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긴축조치

중국의 긴축조치도 단기적으로 세계경제 불안요인

이다. 올들어 중국 금융당국은 지급준비율을 두차례에 걸쳐 1% 포인트 인상하고 직접적인 대출규제 조치도 단행했다. 특히 일부 대출급증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지급준비금 적립(0.5% 포인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은행감독위원회도 은행대출의 속도조절 및 부동산 대출에 대한 관리강화를 촉구하고 신규대출 중단을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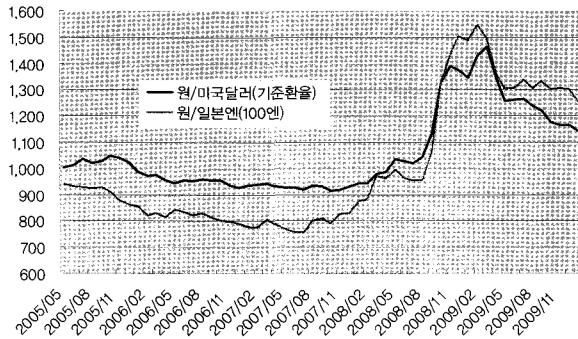
최근 중국 금융당국의 조치는 자산가격 거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조절의 성격이 강하며, 신규 노동력 흡수와 정치·사회 안정 등을 위해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출구전략 시행에는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일련의 유동성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과 관련이 높은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중장기 대출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자산시장에 유입되는 단기대출은 감소했으나 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다 해도 인상폭은 과거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도 금리인상 폭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의 최근 서베이(2009년 12월~2010년 1월)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올 2분기 이후 연말까지 총 0.54%포인트 금리를 인상 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민은행이 통상 한번에 금리를 0.27% 포인트씩 올리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중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지난 2월초 중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10% 가량 기록하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긴축조치가 그렇게 강하게 취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도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요인이

환율 추이(월평균)



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PIGS) 남유럽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이미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더 이상 국채를 찍어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8% 수준의 정부부채가 누적돼 있으며 연간 GDP 대비 9.3%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U의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는 GDP 대비 정부부채가 126.7%에 이르며, 재정적자는 13%에 달한다. 스페인 역시 국가부채가 GDP의 70%에 육박하며 재정적자는 GDP의 10%를 넘는 수준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려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재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PIGS 국가들이 막아야 할 국채 만기가 올해 1~3분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즉, PIGS 국가들이 갚아야 할 채무는 올해 1분기 361억달러, 2분기 438억달러 규모로 집중돼 있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PIGS 국가들이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실제로 포르투갈 정부가 최근 국채 경매에서 5억유로를 팔려고 했지만 3억유로밖에 팔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지역 선진국들이다. 영국, 프랑스의 재정 상태도 위기가 잠재돼 있다. 프랑스는 올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8.2%로 늘어날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EU 회원국 기준을 넘어선 수치다. 정부부채는 GDP의 87.3%로 PIGS 국가들 못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은 더 심각하다. 정부부채가 GDP의 80%에 이르며 재정적자는 GDP의 14.4%에 달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세계경제에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나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25% 정도가 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국가로서 내수규모가 작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대외적인 악재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 원화값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소위 '불황

형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수입감소폭(-25.7%)이 수출감소폭(-13.7%)보다 더 커 상품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5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품수지에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을 더한 경상수지도 427억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되고 수입도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 마이너스 증가에서 벗어나겠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150억~2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보고 있다. 소위 불황형 흑자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원화값은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말 1164.5원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올들어 상당히 떨어졌다.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말 발생한 두바이 쇼크와 유럽경제 불안 여파 등으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환율이 1180원선 위로 상승한 적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하락세(원화값 상승세)는 한 마디로 달러화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무역수지 흑자가 달러 공급확대의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 대규모 외국인 증시자금 유입과 직접투자 증가도 달러화 공급의 큰 몫을 하고 있다. 올해도 무역흑자가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지속돼 원화값이 상승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 평균이 1276.3원선이었는데 올해는 1100~1150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환율을 적정환율로 보는 실질실효환율 개념에서 보면 적정환율은 2월 하순 현재 1140원선보다 더욱 낮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반기에 물가상승 압력, 금리는 상승세 전망

지난해 물가는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서 안정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유가 안정이라는 호재가 작용하면서 물가가 상승압력을 별로 받지 않았다.

앞으로 물가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유가향방이다.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물가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아울러 내수가 회복되면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전세값 급등 현상도 물가불안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원화강세는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CD(양도성예금), 회사채, 국고채 등 시장금리는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 2%로까지 내린 후 아직까지 1년 이상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물가불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특히 경기가 좀더 회복되면 출구전략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상 시기는 빠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이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5월초 아니면 6월 2일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 지난해보다 활성화될 전망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0.2%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급증과 고용부진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 등이 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는 8.9%나 주는 등 금융위기 여파로 투자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건

〈표 1〉 주류 수입 실적

단위 : 천달러,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맥주	11,866 (136.3)	12,802 (7.9)	13,664 (6.7)	14,848 (8.7)	16,532 (11.3)	20,506 (24.0)	30,579 (49.1)	39,373 (28.8)	37,156 (-5.6)
위스키	202,355 (12.3)	247,941 (22.5)	250,401 (1.0)	213,682 (-14.7)	228,915 (7.1)	225,997 (-1.3)	270,294 (19.6)	259,182 (-4.1)	194,812 (-24.8)
포도주	23,109 (16.7)	29,432 (27.4)	45,783 (55.6)	57,979 (26.6)	67,655 (16.7)	88,607 (31.0)	150,364 (69.7)	166,512 (10.7)	112,450 (-32.5)

※ 주 : 1) ()속은 증가율

2) 맥주는 MTI코드 015720, 위스키는 015750, 포도주는 015740

설 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책 효과 등으로 전년의 -2.1%에서 3.1%로 증가율이 회복됐다.

올해는 저조한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세 및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가하락에 따라 교역조건(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값)이 상당히 개선됐는데, 이것이 시차를 두고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설비투자 부진은 재고조정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 에다 세계경제가 동시 침체에 빠지는 가운데 기업의 수익모델 부재와 외환위기후 보수적으로 변한 경영풍토, 기업가정신의 쇠퇴, 각종 규제 등이 투자욕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17%대를 기록할 것이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동안 부진했던 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반동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와 4대강 정비사업 등의 효과가 나타나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간 주택건설 부진이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소비는 완만히 회복될 듯

주류는 비내구소비재이어서 그 소비가 그 때 그 때의 경기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고 소비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류소비도 지난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한 때 검토해 공청회까지 거쳤던 주류세 개선안(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정하기로 하는 안)이 세수 증대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주류 소비 성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 증가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막걸리 열풍은 막걸리를 제외한 다른 주류 소비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막걸리에 대한 국민들의 추가적인 소비증가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타 주류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기가 막걸리를 제외한 주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다.

소주 같은 서민주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열등재'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국민소득도 지난해보다 늘 것이기 때문에 소주소비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겨진다. 정부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에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정책을 취할 경우 소주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지만 서민들의 반발 등을 의식해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스키나 와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제품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다만 위스키 소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른 독주기피 성향 등으로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소비증가세는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와인소비도 최근 '코리아인 와인'으로 불리우는 막걸리 소비 증가 여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원화값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위스키와 와인, 맥주 등 외국산 주류의 수입증가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 주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산 주류는 원화값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류별 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포도주(와인)와 위스키, 맥주 수입이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포도주의 위스키는 대폭적인 수입 감소율을 기록했다.

포도주는 99년에 133%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 31%, 2001년 16.7%로 증가율이 하락하긴 했으나 2002년 27.4%, 2003년 55.6%로 증가율이 다

시 높아졌다. 2004년과 2005년에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2006년 이후 다시 높아져 2007년에는 증가율이 69.7%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경기침체와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둔화돼 10.7%로 증가율이 둔화되더니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다 막걸리 붐 등의 영향으로 -32.5%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했다.

위스키의 경우 수입규모는 여전히 가장 크지만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만 해도 55.5%를 기록했던 위스키 수입증가율은 2003년부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며 오르락 내리락 했다. 2007년에는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율이 19.6%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08년 이후 마이너스로 증가율이 떨어졌다.

맥주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를 넘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나, 2002년 들어 크게 둔화돼 2004년까지 3년간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쳤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수입증가율이 높아져 2007년에는 49.1%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08년에는 수입증가율이 다소 떨어졌으나 28.8%로 다른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한 자리수의 소폭 감소율을 기록했다.